

국어 어휘의 변천 연구(7)

김 태 곤

목 차

I. 서론	IV. 어형 변화형
II. 어형 소멸형	V. 어형 유지형
III. 어형 분화형	VI. 결론

요 약

한국어 어휘의 변천 과정을 고찰했는 바, 15세기 국어인 '가줄비다', '갓', '가도다', '가톨', '가비압다', '가슴', '값다', '겨시다', '값', '거느리다' 등의 어휘가 후에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폈는데, 어형에 중심을 두어 소멸형, 분화형, 변화형, 유지형으로 나누고 이들 단어의 어형과 의미의 변화된 모습을 살폈다.

주요 용어 : 어휘, 어형, 의미

I. 서 론

세상 만물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하는 언어도 세월의 흐름 속에 살아 움직이며 변화를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대국어와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국어 표기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15세기에 쓰였던 국어 어휘가 그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변천하였는가를 밝히는 어휘 변천의 연구이다.

어휘의 변화는 그 양상도 여러 가지인데, 어형이 변하는 것, 의미가 변하는 것, 그리고 이들 모두가 변하는 것 등이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겉으로 보아 알 수 있는 어형에 기준을 두어, ① 語形이 消滅된 것, ② 語形이 分化된 것, ③ 語形이 變化된 것, ④ 語形이 維持된 것으로 나누어, 해당 어휘의 어형이나 의미의 변화과정을 문헌에 나타난 자료를 중심으로 시대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런 유형에 따른 어휘를 선정하여 고구하였는데, 어형이 소멸된 것으로 '가줄비다', '갓'을, 어형이 분화된 것으로 '가도다', '가랴'을, 어형이 변화된 것으로 '가비압다', '가슴', '값다', '겨시다'를, 어형이 유지된 것으로 '값', '거느리다'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이 논문에서 인용된 용례의 문헌과 그것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

- 〈家諺〉 家禮諺解 1632
- 〈警民〉 警民編 1658(改刊本)
- 〈敬釋〉 敬信錄諺釋 1796
- 〈救簡〉 救急簡易方 1489
- 〈救方〉 救急方諺解 1466
- 〈國漢〉 國漢會語 1895
- 〈金三〉 金剛經三家解 1482
- 〈南明〉 南明集諺解 1482
- 〈臘藥〉 諺解臘藥症治方 英祖朝
- 〈老諺〉 老乞大諺解 1670
- 〈楞〉 楞嚴經諺解 1462
- 〈同文〉 同文類解 1748
- 〈痘要〉 諺解痘瘡集要 1608
- 〈杜重〉 分類杜工部詩諺解 1632(重刊本)
- 〈杜初〉 分類杜工部詩諺解 1481(初刊本)
- 〈明義〉 明義錄諺解 1777
- 〈牧牛〉 牧牛子修心訣 1466
- 〈蒙老〉 蒙語老乞大 1741
- 〈蒙法〉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 世祖末
- 〈蒙解〉 蒙語類解 1768
- 〈朴新〉 朴通事新釋諺解 1765
- 〈朴諺〉 朴通事諺解 1677
- 〈方言〉 方言類釋 1778
- 〈法華〉 妙法蓮華經諺解 1463
- 〈魏老〉 魏譯老乞大 16세기초
- 〈魏朴〉 魏譯朴通事 16세기초
- 〈魏小〉 魏譯小學 1517
- 〈三綱〉 三綱行實圖 1481
- 〈三譯〉 三譯總解 1703
- 〈釋〉 釋譜詳節 1447
- 〈石千〉 石峰千字文 1583

- 〈禪家〉 禪家龜鑑諺解 1610(松廣寺本)
- 〈宣內〉 內訓 1573(宣祖內賜本)
- 〈宣小〉 小學諺解 1587(宣祖版)
- 〈續三〉 續三綱行實圖 1514(原刊本), 17세기초(重刊本)
- 〈新續〉 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
- 〈新語〉 捷解新語 1676
- 〈兒學〉 兒學編 1907
- 〈樂學〉 樂學軌範 1493
- 〈諺救〉 諺解救急方 1608
- 〈女範〉 女範 英祖朝
- 〈女四〉 女四書諺解 1736
- 〈譯解〉 譯語類解 1690
- 〈永嘉〉 禪宗永嘉集諺解 1464
- 〈倭解〉 倭語類解 18세기
- 〈龍歌〉 龍飛御天歌 1447
- 〈圓〉 圓覺經諺解 1465
- 〈月釋〉 月印釋譜 1459
- 〈月千〉 月印千江之曲 1447
- 〈類合〉 新增類合 1576
- 〈恩重〉 恩重經 1563(松廣寺本), 1592(其方寺本), 1741(南高寺本), 1912(강지회본)
- 〈二倫〉 二倫行實圖 1730(重刊本)
- 〈隣語〉 隣語大方 正祖朝
- 〈正俗〉 正俗諺解 18세기말(-叢本)
- 〈種德〉 種德新編諺解 1758
- 〈註千〉 註解千字文 1804
- 〈重老〉 重刊老乞大諺解 1795
- 〈重捷〉 重刊捷解新語 1781
- 〈七大〉 七大萬法 1569
- 〈太上〉 太上感應篇圖說諺解 1852
- 〈漢清〉 漢清文鑑 英祖朝
- 〈訓蒙〉 訓蒙字會 1527(東京大學本)
- 〈訓諺〉 訓民正音 1459(諺解本)

II. 어형 소멸형

1. 가줄비다

중세국어에 단어 '가줄비다'는 아래 용례와 같이 '比較하다'와 '比喩하다'의 의미로 아주 많이 쓰였다.

① 比較하다

無比身은 가줄볼 띠 업슨 모미니(釋 6:41)
사르미 수비 몬 아라 가줄벼 보아사 앓 時節이(釋 9:2)
楊雄의 집과 가줄비느니(比楊雄宅)(杜初 7:1)
그림 그리기 또 가줄비리 업도다(揮灑亦莫比)(杜初 16:30)
이 두 이룰 가줄비건댄(方斯二者)(宣內 2上6)

② 譬喩하다

世間人 드틀을 가줄벼 니르시니(月千 125)
譬는 가줄벼 니를씨오 喩는 알월씨라(釋 13:38)
가지와 넙과는 사오나본 사르물 가줄비시고 正은 여르른 德인 사르물 가줄비시니(釋 13:47)
大乘은 큰 술위니 菩薩을 가줄비고(月釋 1:37)
海印에 가줄비고(方之海印)(金三 2:18)
이논 塵界로 가줄보물 드르샤(此舉塵界之喩)(金三 3:9)
가줄비건댄 사르미 꾸메 모맷 브스르를 보아(如人夢見身瘡)(圓 上二之 -50)
煩惱人 미틀 가줄비시니라(譬煩惱之本)(法華 2:128)

위의 용례를 보면 단어 '가줄비다'가 '比喩하다'의 의미로 불교 관계 문헌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려운 불교 교리 설명에서 比喩하여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하다. 이 단어가 후에 소멸 되고 대신 한자어 '譬喩하다'가 쓰이는데 이미 15세기에 '譬喩'의 단어가 다음과 같이 쓰였다.

華嚴經에 金剛 머근 譬喩 곁흐니라(如華嚴經食金剛喩)(圓 上 一之 -92)

이 단어가 17세기에는 다음과 같이 용례가 '比較하다'의 의미로만 쓰인 것이 나타나고 '譬喩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楊雄의 집과 가줄비느니(比楊雄宅)(杜重 7:1)
그림 그리기 또 가줄비리 업도다(揮灑亦莫比)(杜重 16:30)

넷 사람도 가줄비다 못흐리로소니(古莫比)(杜重 16:32)

이 단어가 위와 같이 17세기 국어까지만 쓰인 것이 나타나고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아 이 단어는 소멸되고 대신 한자어 '比較하다'나 '譬喩하다'가 대체되어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줄비다(比較, 譬喩)(15세기) > 가줄비다(比較)(17세기)

2. 갓

중세국어에 단어 '갓'은 '妻'와 '女子'의 의미로 아래 용례와 같이 많이 쓰였다.

① 妻

妻는 가시라(月釋 1:12)

가시 그리볼씨(月千 177)

眷屬은 가시며 子息이며(釋 6:5)

가시며 子息이며 도라호야도(月釋 1:13)

겨지비 갓 드외아지라(三綱 孝9)

② 女子

여섯 아돌란 호마 갓 얻이고(釋 6:13)

또한 이 말이 '가시'라고도 불렀는데 15세기에 재워했던 임금을 다룬 「睿宗實錄」에 '俗呼姬妾爲加氏'라고 실린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한편 중세국어에 아래 용례와 같이 '갓나히'와 '가스나히'의 어형을 가진 단어가 나오는데 '여자아이'란 의미를 가진 것으로 '갓'에서 파생된 단어로 현재도 남부방언에서 '가시내', '가시나', '가시나이', '간나', '간나이' 등¹⁾의 말이 쓰이고 있다.

싸히 소리 갓나히 소리(釋 19:14)

갓나히 월경슈 무든 거슬(童女月經衣)(救簡 2:54)

갓나히도(女孩兒)(鬮朴 卜45)

스나히와 갓나히 일씩이러니(男女百口)(宣小 6:71)

少女는 갓난 가스나히라 갓난 가스나히는 그 소매셔 아모거시 나리라(七大 15)

단어 '갓'이 17세기에는 아래 용례와 같이 예만이 발견된다.

1) 김형규(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p. 54.

① 妻

가시나 겨지븐 므츄매 지비 잇도다(婦女終在家)(杜重 12:21)

이처럼 단어 '갓'이 중앙어에서는 17세기까지만 쓰이고 이 어형이 사라진 반면, 이 말의 의미는 '안히', '겨집' 등과 같은 기존의 단어가 도말아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언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갓'이 '가시내', '가시나', '가시나이', '간나', '간나이' 등의 어형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Ⅲ. 어형 분화형

1. 가도다

① 거두다(收)

눅므를 썩려 能히 가도디 못호니(涕灑不能收)(杜初 24:47)

② 가두다(囚)

獄애 가도아 罪니블 므디며(釋 9:8)

獄은 사름 가도는 짜히라(釋 9:8)

慈悲心을 내야 가도엿던 사름 노코(釋 9:33)

가들 슈 : 囚(類合 下21)

위의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국어에서 단어 '가도다'는 '收'와 '囚'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의미는 有緣性이 있으면서도 다르다. 그런데 15세기에 이미 '收'의 의미를 가진 어형이 쓰였는데 그것은 '거두다'이고 용례는 아래와 같다. 이 어형 '거두다'는 어형 '가도다'에서 모음 교체(Ablaut)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국어에서 이러한 현상의 예는 많이 볼 수 있다.²⁾

짐 거두는 거시라(月釋 序24)

機를 거두샤미 눅디 못호몰 브트실시(收幾未普)(圓 上之一74)

긴 수프레 안개 거두미 ㄱ죽호도다(長林卷霧齊)(杜初 15:17)

거들 식 : 穢(訓蒙 下5)

거들 렴 : 斂(訓蒙 下21)

거들 슈 : 收(訓蒙 下5)(奎章閣本, 內閣文庫本 등), (類合 下26), (石千 2)

2) 예를 들면, 남다(餘) : 넘다(溢), 밧다(脫衣) : 벗다(謀免), 설(元日) : 살(歲) 등.

가들 슈 : 收(訓蒙 下5)(東京大本)
 던회 거두디 못흐니(田禾不收的)(魏老 上53)
 婢 時急히 거도더니(婢遽收之)(宣內 1:18)

이처럼 단어 '거두다'가 '收'의 의미로 15, 16세기 문헌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訓蒙字會」東京大本에서는 어형이 '가두다'로 표기되고, 宣祖版 「內訓」에서는 '거도다'로 표기되어 당시에 모음교체가 자유로웠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단어 '가도다'가 17세기에 쓰인 용례는 아래와 같은데 중세국어와 다르지 않다.

① 거두다(收)

퍼며 가도미 사람을 조차 가비압도다(舒卷隨人輕)(杜重 5:48)
 늣트를 뿌려 能히 가도디 못호니(涕灑不能收)(杜重 24:47)

② 가두다(囚)

왕이 노히여 가도아 두니(新續 忠1:17)
 가도다(牢裡監者)(譯解 上66)

이처럼 단어 '가도다'가 '收'와 '囚'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편, 어형 '거두다'가 중세국어와 같이 '收'의 의미로 쓰였는데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긴 수프레 안개 거두미 ㄹ죽호도다(長林卷霧齊)(杜重 15:17)
 보리 거두다가 버피게 자핀 배 되거롤(收麥爲虎所攬)(新續 孝2:45)
 환 뼈를 거두어 외화 하늘애 고흐고(收合白骨告天)(新續 孝3:41)
 어제 삼을 다 거두어 비여시니(夜來箇都收割了麻)(朴諺 中33)
 그저 원컨대 잘 거도게 호쇼서(只願的好收着)(朴諺 中13)

그런데 18세기에는 어형 '가도다'에서 '收'의 의미는 사라지고 '囚'의 의미만 어형 '가도다'에 남아 아래 용례처럼 쓰였는데, 특히 「女四書諺解」(1736)에서는 어형이 지금과 같은 '가두다'로 표기되어 있다.

저군이 사람을 남간의 가도는 일이 이시리오 하니(明義 1:45)
 거두어 옥에 가도앗더니(收下獄)(種德 下51)
 가들 슈 : 囚(倭解 上53)
 項王이 그 어미롤 가도고(女四 4:33)
 ㄹ벼야이 중형을 쓰지 말며 ㄹ벼야이 가도지 말며(敬釋 60)
 당안의 가도앗더니(女範 2)

아의 子褻를 가두엇더니(女四 4:42)

그리고 '收'의 의미는 단어 '거두다'가 아래 용례처럼 도말아 완전 분리와 정리가 이루어졌다.

거두다(收了)(同文 上:30)

거들 슈 : 收(倭解 下4)

북녘 몽고를 거두고(三譯 3:6)

19세기에도 어형 '거두다'(收)와 어형 '가두다'(囚)가 확연히 구별되어 쓰였다.

가. '거두다' 型

거들 슈 : 收(註千 2)

거들 슈 : 聚(註千 21)

거들 세 : 稅(註千 28)

거두다(收斂, 收取, 秋收)(國漢 p.5)

나. '가두다' 型

가두다(囚, 囚禁), 가들 수 : 囚(國漢 p.1)

이상과 같이 고찰한 바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를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15세기보다 앞선 시기에 단어 '가도다'와 모음교체하여 어형 '거두다'가 형성되었고, 어형 '가도다'는 17세기까지는 '收'와 '囚'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18세기에는 '收'의 의미는 기존의 어형 '거두다'에 흡수되었다.

① 가도다(收, 囚)(15세기) > 가도다(囚)(18세기) > 가두다(囚)(19세기 ~ 현재)

② 거두다(收)(15세기 ~ 현재)

2. 가를

단어 '가를'은 중세국어에 아래 용례와 같이 '갈래'(派)와 '가랑이'(股間)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① 갈래(派)

耶舍尊者를 命호야 숲가라굴 피아 八萬四千 가르래 放光케 호고(釋 24:24)
 네 가롤로 滅을 띄나(四派示滅)(楞 9:120)
 프리 물리 이서 가르를 모도듯호니(如水流有宗以會其支派)(法華 1:13)
 湖는 프리니 다섯 가롤로 흐를시 五湖라 호니라(金三 2:18)
 그 보비 ... 열네 가르리니 가르마다 七寶 비치오(月釋 8:13)

② 가랑이(股間)

드러 내 자리물 보니 가르리 네히로새라(樂學 處容歌)

단어 '가롤'은 중세국어에 벌써 아래 용례처럼 여러 형태 변화를 나타냈는데 '가리', '가로', '가래' 등의 어형으로 나타나며 모두 '갈래'(派)의 의미로 쓰였다.

세 가르 돌드리 잇느니(有三叉石橋)(龜朴 上68)
 늪므를 여러 가로로 흐르게 우노라(送汝萬行啼)(杜初 8:37)
 몫가르 패 : 派(訓蒙 上5)
 물가래 패 : 派(類合 下59)

가. '갈래' 型

17세기에는 어형 '가롤'은 쓰이지 않고 '가로', '가래'가 나타난다.

늪므를 여러 가로로 흐르게 우노라(送汝萬行啼)(杜初 8:37)
 물의 比컨대 근원이 혼 가지오 가래 다름이니(比如水同源而異派)(警民 6)(改刊本)
 두 집 스이에 세 가래 石橋ㅣ 이시니(兩閣中間有三叉石橋)(朴諺 上60)

18세기에는 어형이 '가리'로 나타난다.

근원이 혼 가지로써 가리 논화완는디라(同源分派)(正俗 15)(叢本)
 물 가리(水派)(同文 上8)

20세기 중엽에 나온 文世榮의 「朝鮮語辭典」(1938)에 단어 '갈래'를 다음과 같이 실어 놓았다.

갈래 : ① 근본은 하나요 끝은 둘 이상으로 나누어진 것. ② 밑둥은 하나요 끝은 둘 이상으로 나누어진 곳. ③ (문법) 종류.

나. '가랑이' 型

19세기말 문헌인 「國漢會語」에 단어 '가랑이'가 나타나지만 이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 알 수 없다.

가랑이(脚肢)(國漢 p.2)

조선 총독부 편 「朝鮮語辭典」(1920)에도 '가랑이'가 같은 의미로 나온다.

가랑이 : 兩股の間.

단어 '가롤'에 대하여 지금까지 고찰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롤(派, 股間)(15세기)>① 가르(派)(16세기)>가래(派)(17세기)>가릭(18세기)>갈래(20세기~현재)

>② 가랑이(股間)(19세기~현재)

IV. 어형 변화형

1. 가비압다

현대국어 형용사 '가볍다'는 15세기에는 아래 용례와 같이 어형이 '가비압다'였으며 의미도 다양했다.

① 중량이 무겁지 않다(輕量)

가비야오닌 羽族이 드외느니라(輕爲羽族)(楞 8:74)

가비야온 고지 듣는다(落輕花)(杜初 7:5)

가비야오미 그려기 터리 곧고(輕若鴻毛)(永嘉 下67)

가비야올 경 : 輕(石千 22) (類合 下48)

가비야온 들들이 보드라운 플에 블터습 ㄱ트니(如輕塵棲弱草耳)(翻小 9:63)

가비야온 들들이(輕塵)(宣小 6:58)

② (병세나 죄 등이) 대단치 않다.

비록 그 病이 가비압고도(釋 9:36)

가비야본 病을 어더도(月釋 9:57)

③ (마음이나 몸이) 홀가분하다. 輕快하다

輕淸은 몸 가비얇고 밋숨 물골씨라(兼法 39)

④ (소리나 바람 등이) 弱하다.

입시울 가비야^뵈 소리드외느니라(訓諺)

벼르미 가비야오니 흰 나비 깃거호고(風輕粉蝶喜)(杜初 21:6)

⑤ (가치나 비중 따위가) 적다.

절개룰 가져 생을 가비야이 호야(守節輕生)(永嘉 下109)

나사 비호물 가비야이 너기며 슬회여 호리와(輕厭進習者)(圓上 之 90)

그 남지를 가비야이 너기며(輕其夫)(觀小 7:33)

⑥ 輕妄하다

네 미친 마를 가비야비 發호야(汝輕發狂言)(牧牛 9)

스스로 가비야이 흠이 맞당티 아니호니이다(不宜自輕)(宣小 6:104)

16세기에는 위에 밀줄 친 용례와 같이 어형이 '가비얇다'로도 쓰인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어형의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7세기에는 15세기와 같이 어형이 '가비얇다'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대세는 아직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래 용례에 밀줄 친 바와 같이 어형이 '가비얇다'로도 나타나 오각일 것으로 생각된다.

① 중량이 무겁지 않다(輕量)

가비야온 빗돛그로 도히 가미 호호니(輕帆好去便)(杜重 13:27)

느려오디 아니호는 줄머기는 가비야오며 가비얇도다(輕輕不下鷗)(杜重 14:8)

② (마음이나 몸이) 홀가분하다. 輕快하다

모미 바르수 가비얇느니라(杜重 5:40)

病이 하도 쏘 모미 가비얇도다(多病也身輕)(杜重 10:5)

③ (소리나 바람 등이) 弱하다.

벼르미 가비야오니 흰 나비 깃거호고(風輕粉蝶喜)(杜重 21:6)

④ (가치나 비중 따위가) 적다.

그 남편을 가비야이 너기며 식어버이룰 업쇼이 너기디(家諺 4:2)

18세기에는 아래 용례와 같이 어형이 '가비압다'도 나타나지만 '·'가 사라진 어형인 '가비압다'(女四書諺解 1736년)가 쓰였고, 이보다 더 변화된 어형인 '가비엣다'(方言類釋 1778, 恩重經 1741)로 표기된 것이 나타났다.

① 중량이 무겁지 않다(輕量)

曹操의게 알월 스이에 비 가비압고 물이 급흐여셔(三譯 4:19)

가비압다(輕啊)(蒙解 下17)

가비아온 비단은 축의 너리고(女四 3:6)

녀인의 뼈는 검고 가비여우니라(女人骨頭黑了又輕)(恩重 2)(南高寺本)

술위 가비엣다(車輕)(方言 4:6)

② (소리나 바람 등이) 弱하다.

무름을 은근히 햏야 가비압게 말흐고(女四 3:8)

③ (가치나 비중 따위가) 적다.

그 義 가비압디 아니흐니(其義匪輕)(女四 2:21)

19세기말 문헌인 「國漢會語」(1895)에는 '가뷔압다', '가뷔압다'로 표기하여 圓唇母音化 현상을 반영했다.

가뷔압다(輕捷), 가뷔야울 경 : 輕(國漢 p.3)

20세기 초에는 아래 용례와 같이 '가부엣다', '거브엣다' 등의 표기도 나오지만 조선총독부 편 「朝鮮語辭典」(1920)에는 18세기 문헌에 표기되었던 '가비엣다'로 표기하여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

가부엣다 경 : 輕(兒學 下8)

녀인의 골 두면 검고 또 거브엣오니라(恩重 2)(강지회본)

가비엣다 : 輕. (조선총독부 「조선어사전」)

그러나 文世榮의 「朝鮮語辭典」(1938)에서는 '가비엣다'가 축약된 형태인 '가볍다'가 실려 있고, '가바엣다', '가비압다' 등은 옛말로 처리했다.

가볍다 : ① 무겁지 않다. 무게가 적다. ② 대단하지 않다. ③ 소중하지 않다. ④ 진중하지 않다. 잠잡지 않다. ⑤ 부담이 많지 않다. ⑥ 훌가분하다 ⑦ 쉽다 ⑧ 빠르다. (문세영 「조선어사전」)

지금까지 살펴본 단어 '가비압다'가 중세국어에 여러 의미를 보유하고 있었고, 현대국어 '가볍

다'도 여러 의미를 보유한 다의어다. 이 단어에 대한 어형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비압다(15세기) > 가비압다(16세기) > 가비엎다(18세기 중엽) > 가뵤다(1938년 ~ 현재)

2. 가슴

현대국어 단어 '가슴'은 15세기에는 '가슴'으로 쓰였고 의미는 '胸部', '마음', '허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래 용례를 보면 「恩重經」(1563)에서는 '가슴'으로 표기하여 모음 사이에서 'ㅅ'이 유성음화되어 'ㅅ'으로 나타난 것을 반영했다.

① 胸部

天人大衆둘히 가슴 두드려 울며(釋 23:25)

가슴미며 허리 우히 거여버(月釋 2:41)

가슴물 찢히고(熨心上)(救方 上74)

가슴 흉 : 胸(類合 下32)

가슴 가운데(胸中)(金三 2:46)

이제사 아스오니 가슴미 박사디는 듯호여이다(今悟知悲膽俱碎)(恩重 17)(松廣寺本, 其方寺本)

갈로 가슴물 버혀(以利刀割其心)(恩重 19)(松廣寺本, 其方寺本)

② 마음

처삼 깃거 가슴매 다맛는 므슴물 소다 내요라(初欣寫胸臆)(杜初 9:17)

눈므리 가슴미 ㅁ독호엿도다(淚滿胸襟)(恩重 7)(松廣寺本, 其方寺本)

설의 모도와 有德호신 가슴매(樂學 處容歌)

가슴 억 : 臆(訓蒙 上27)

③ 허파(肺)

朝廷에 가고져 호나 가슴물 알하(歸朝踟病肺)(杜初 8:54)

17세기에서는 이 단어가 15세기와 같이 '가슴'으로 그대로 쓰였지만 「諺解救急方」(1608)에는 '가삼'으로 아래와 같이 어형을 표기하였는 바, 「諺解救急方」은 필사체로 당시 언중들의 발음을 잘 나타냈다고 하겠다.

① 胸部

가삼 알는 병이라(心痛)(諺救 上16)

가삼이 문득 아프거든(心胸卒大痛)(諺救 上16)

가삼이 알파 겨너디 못호민 이는 나민 독괴 심장의 든디니(心痛不可忍此餘毒歸心)(痘要 下48)

가슴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야(叩膺不輟)(新續 孝6:25)

② 마음

처음 갖거 가슴매 다맞는 마음물 소다 내요라(初欣寫胸臆)(杜重 9:17)

③ 허파(肺)

朝廷에 가고져 허나 가슴물 알하(歸朝踟病肺)(杜重 8:53)

18세기에도 이 단어가 15세기와 같이 '가슴'으로 표기되었으나, 16세기 문헌인 「恩重經」에서 '가슴'으로 표기되었던 것이 18세기에 간행된 「恩重經」(1741) 南高寺本에서는 '△'이 사라진 형태 '가움'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표기는 실제 발음이 아니고 '△'이 사라지면서 행한 의식적인 표기일 것이다.

① 胸部

이번 일이 가슴의 그득흔 혈성이로다(明義 1:14)

가슴(胸膛)(方言 1:17)

가슴 알타(心疼)(方言 3:3)

먹고 가슴비 알는 이와(服胸腹痛)(臘藥 3)

흔 한미 가슴을 두드려(一媧撫膺)(種德 下50)

가슴 도곤도곤하(心跳)(同文 上20)

이제사 아오오니 가움이 보사지는 듯하여이다(今悟知悲膺俱碎)(恩重 17)(南高寺本)

칼로 가움을 버혀(刀割其心肝)(恩重 19)(南高寺本)

② 마음

눈물이 가움의 그득하엿도다(淚滿胸襟)(恩重 7)(南高寺本)

19세기에는 이 단어가 아래 용례와 같이 '가삼' 또는 '가슴'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음이 소실되면서 그 다음 표기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

① 胸部

가삼 흉 : 胸(國漢 p.3)

② 마음

너 맞춤 가슴알이 잇기로(我心悶)(太上 5:26)

20세기 초에 간행된 조선총독부 편 「朝鮮語辭典」(1920)에는 단어 '가슴'을 실어 놓고 '가삼'은 고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현진건의 소설 「犧牲花」(1920)에는 '가슴'이 일반적이거나 '가삼'도 나온다.

가슴 : 胸.(古語, 가삼. 鄙語, 가슴패기)(朝鮮語辭典)
이 말을 마치자 가삼이 찌르르 해지며(犧牲花 p.136)

지금까지 '가슴'에 대하여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슴(胸部, 마음, 肺)(15세기)>가슴(胸部, 마음)(18세기)>가삼, 가슴(胸部, 마음)(19세기)>가슴(20세기~현재)

3. 값다

중세국어에 많이 쓰인 단어 '값다'는 현대국어에는 '갈무리하다'로 쓰여 많은 어형의 변화를 보여준다. 아래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말이 여러 의미로 활발히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① 貯藏하다. 갈무리하다

습은 갈물 씨니 나돌 갈물 씨라(釋 9:20)
그술히 가드며 겨스레 갈므며(秋收冬藏)(金三 2:6)
갈물 장 : 藏(類合 下37), 갈물 장 : 藏(石千 2)

② 숨다. 모습을 감추다

주근 므레 갈맺는 龍이 사라(死水藏龍活)(金三 4:12)
사르미 사오나온 고디 잇거든 뿌려 갈물디나라(人有少處掩藏着)(魏老 下44)
北斗스 소매 모뎨 값게 흐시니(令北斗裹藏身)(金三 4:38)
물러가 갈맺는 雨師를 츠기 너기고(退藏恨雨師)(杜初 10:25)
鳳이 갈므니 불근 하늘 나조히오 龍이 나가니 흰 므리 흐리도다(鳳藏丹霄暮龍去白水渾)(杜初 16:3)

③ 殮하다

갈물 럼 : 殮(訓蒙 中35)

17세기에는 이 단어가 15세기와 같은 형태로 「杜詩諺解」 중간본에서 쓰인 것이 나타났다.

① 숨다. 모습을 감추다.

峽의 얼굴은 堂隍 곤흔 스이에 갈마 잇고(峽形藏堂隍)(杜重 1:17)
물러가 갈맺는 雨師를 츠기 너기고(退藏恨雨師)(杜重 10:25)
鳳이 갈므니 불근 하늬 나조히오 龍이 나가니 힌 므리 흐리도다(鳳藏丹霄暮龍去白水渾)(杜重 16:3)

그 후 18, 19세기 문헌에서는 이 단어가 未見이고, 20세기 중엽에 나온 文世榮의 「朝鮮語辭典」(1938)에 이 말이 실려 있는데 다음과 같이 '갈므다'로 어형이 변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이 말이 명사 '갈무리'와 동사 '갈무리하다'의 형태로 쓰이고 있다.

갈므다 : '감추다'의 사투리.

지금까지 살펴본 단어 '값다'에 대하여 변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값다(藏, 隱, 殮)(15, 16세기) > 값다(藏, 隱)(17세기) > 갈므다(1938년) > 갈무리하다(현재)

4. 겨시다

현대국어 '계시다'에 해당되는 중세국어 '겨시다'는 다음 용례와 같이 활발하게 쓰였다.

① '머물러 있다'의 높임말

도즈기 겨신 뉘 무러(賊問牙帳)(龍歌 62)
四祖 | 便安히 몬 겨샤(四祖莫寧息)(龍歌 110)
뵈고래 수머 겨샤(釋 6:4)
柳山에 겨샤도 說法히시며(釋 6:41)
사름의 즈식되연는 이 父母 | 겨시거든(爲人子者父母存)(宣小 3:20)

② 사람에게 딸린 사물이나 사실의 높임말

부테라 혼 일후미 겨시고(釋 13:59)
부테 세 마리 겨시니(佛有三語)(圓 上 之 26)
니르샤미 한흐며 저그샤미 겨시건뎡(說有豐約)(法華 3:189)
저그샤미 겨시건뎡 다오미 업스니(法華 3:189)
恩愛 겨실씩 敬心이 몬 오으더시니(月千 128)
네흔 말스미 通과 別왜 겨시니(四言有通別)(圓 上 之 26)
法身이 經 니르샤미 쁘디 이에 겨시니라(法身說經義在斯矣)(圓 上 二 之 51)

중세국어 '겨시다'는 '이시다', '있다'의 높임말이지만, 현대국어 '계시다'와는 달리 그 당시에 '머물러 있다'의 뜻 외에 위의 용례 ②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의 '일홈', '말'(言), '恩愛', '뜻' 등의 서술어로도 자연스럽게 쓰였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단어에 서술어 '계시다'를 사용할 경우 과잉 존대의 오용으로 보고 있다.

17세기에는 '겨시다'가 '계시다'로 변화하여 쓰이고 있음을 아래 용례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

① '머물러 있다'의 높임말

- 고요히 안자 겨사(癸丑日記 1:38)
- 흔 사람의게로서 나 겨시니(同出於一人)(警民 6)(改刊本)
- 부테 계시며 少林門下에 었더 妄語하시는 祖師이 계시료(禪家 上36)(松廣寺本)
- 부테 常例 계시다 하시고(佛常在焉)(禪家 上36)(松廣寺本)
- 큰 하늘히 眞實로 照臨하야 계시니라(皇天眞照臨)(杜重 3:18)
- 어히업시 아라 계시외(新語 4:23)

18세기에는 어형 '계시다'가 많이 쓰였지만 '겨시다'도 여전히 나타난다. 그리고 아래 용례 ②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단어가 사람의 '病', '德'의 서술어로도 여전히 쓰이고 있다.

① '머물러 있다'의 높임말

- 姑ㅣ 안자 계시거든 설다가(女四 2:18)
- 안히 계시면 오려 하더라 니르고 오라(重捷 1:2)
- 東萊계서 요스이는 病드러 계시더니 저기 하려 겨시오매(重捷 2:1)
- 볼서 떠나 계시되(隣語 1:6)
- 든든이 給約하야 계시다가(隣語 1:25)
- 해불이 하늘의 바회고 네군이 단좌하야 계신디(敬釋 49)

② 사람에게 딸린 사물이나 사실의 높임말

- 父母ㅣ 疾이 겨시거든 몸이 床에 찌나디 말아(父母有疾身莫離床)(女四 2:14)
- 어덜고 덕이 겨샤 일이 네 아니어든(女範 1)

20세기 초에는 지금처럼 어형이 쓰였고, 의미도 사람에게 딸린 사물에는 이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

계시다 : 居らろ(居ろの敬語). (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계시다 : '있다'의 존대. (문세영 「朝鮮語辭典」)

현대국어에서 단어 '계시다'는 화자가 주어를 직접 높일 때 사용하고,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높일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있으시다'란 말을 쓴다.³⁾ 이러한 현상은 위에 소개한 「朝鮮語辭典」을 볼 때 20세기 초에도 그러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단어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겨시다('머물러 있다'의 높임말, 사람에 딸린 사물이나 사실의 높임말)(중세국어)>겨시다, 계시다(의미는 중세국어와 같음)(17세기)>계시다('있다'의 높임말)(20세기초~현재)

V. 어형 유지형

1. 값

중세국어에서 많이 쓰인 단어 '값'은 어형이 현대국어에서도 변하지 않고 같다.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가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는 달리 '代身'의 뜻으로도 쓰인 점이 다르다. 아래 용례 ④를 보면 알 수 있다.

① 價格

갑시 百千이 쓴 瓔珞으로 釋迦牟尼佛의 가져 드르샤(月釋 18:78)

香六鉢 | 갑시 娑婆世界 쓰더니(月釋 18:28)

네 갑술 倍히 주고(圓 序47)

만스매 값 업슨 구스를 갈맷느니(心藏無價珍)(南明 上32)

사오나오니는 갑술 언머예 풀다(低的多少價錢賣)(龜老 下59)

네 간대로 값 뵈오디 마라(你休胡討價錢)(龜老 下59)

② 거래 시 주고받는 돈(代金)

삼년을 맞다셔 갑 받디 말오(管的三年不要功錢)(龜朴 上10)

수울웃 도티 아니커든 갑술 갑디 말라(酒不好時不要還錢)(龜老 上63)

③ 代價. 값

碑 지순 갑셋 도늘 가 求索하느다(去索作碑錢)(杜初 22:12)

느미 고공드러 갑 바다 어미를 넘피며 머규디(行備以供母)(龜小 9:21)

④ 代身

3)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다."

다른 사르물 갑새 보내니(釋 24:51)

갑새 죽가지이다(三綱 孝21)

하늘의 비로더 갑새 죽거지라 호더라(禱天請以身代)(續三 孝29)

17세기에서는 단어 '값'이 '代身'의 뜻으로 쓰인 것은 발견되지 않고, "울고 슬피 비러 7로되 원컨대 더호여 죽거지라(泣哀乞曰願代死)(新續 孝3:42)"에서 같이 원문을 풀이한 '더호여'가 나온다. 그러나 다음 18세기에 '값'이 '代身'의 뜻으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7세기에도 이런 의미로 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① 價格

내 이 암어롱괴를 사려 호노라. 암은 갑시 만호니라(我要這女花猫兒女的價錢)(朴諺 中57)

풀 갑술 고디식이 니르라(賣的價錢老實說)(朴諺 中57)

네 므슴 아라 간대로 갑술 외오는다(你爲甚胡討價錢)(朴諺 中57)

네 간대로 갑 외오디 말라(你休胡討價錢)(老諺 下54)

② 거래 시 주고받는 돈(代金)

갑슨 네게 잇고 物은 내손더 이시니(錢是你上有物在我根底)(朴諺 中57)

갑 주다(還錢)(朴諺 單子1)

갑 밧다(索價錢)(朴諺 單子3)

술곳 도티 아니커든 갑술 갑디 말라(酒不好時不要還錢)(老諺 上57)

③ 代價. 값

碑 지운 갑셋 도늘 가 求索호눗다(去索作碑錢)(杜重 22:12)

18세기에는 '값'이 중세국어와 같은 의미를 보유하고 있었겠지만, 아래 용례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 '값'을 쓰지 않고 '돈', '工錢', '더신' 등 구체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① 價格

갑 직 : 直(倭解 上55)

갑 가 : 價(倭解 上55)

갑(價錢)(同文 下26)

갑(價値)(漢清 10:16)

② 거래 시 주고받는 돈(代金)

- 술이 도치 아니면 갑술 갑지 말라(蒙老 4:10)
- 이의 문서를 쓰고 갑술 바다시니(已書券納直)(種德 下9)
- 지물 취훈 갑술 당케 하고(敬釋 6)
- 급훈 병의 갑 바른 후 약을 내지 말지니라(敬釋 69)
- * 만일 조치 아니거든 네 돈을 갑지 말라(若不好你別還錢)(重老 卜57)

③ 代價. 값

- * 우리 工錢을 밧지 아니코(我們就不要工錢)(朴新 1:11)
- * 데 언머 공전을 밧아야 맞치 고치리오(他要多少錢纔醫呢)(朴新 1:41)

④ 代身

- 형의 갑새 내 죽거지라 혼대(自受戮以代兄命)(二倫 9)(重刊本)
- * 공스슈응을 즈니로 더신희야 힘흠은(明義 1:6)

현대국어에서는 단어 '값'이 '代身'의 뜻으로는 쓰이지 않고, 그 대신 다른 의미가 더 추가하여 쓰이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값(價格, 代金, 代價·값, 代身)(중세국어) > 값(價格, 代金, 代價, 어떤 사물의 중요성이나 의의, 수학에서 式이 취하는 수)(현재)

2. 거느리다

중세국어에 단어 '거느리다'는 '領'의 뜻 이외에 '濟'의 뜻도 가지고 있었다. 이 단어가 '救濟하다'의 뜻도 가지게 된 것은 '세상을 잘 거느려 인간을 구제한다.'는 '적용의 전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① 거느리다(領)

- 領은 거느릴씨라(月釋 1:13)
- 帥는 爲頭호야 거느릴씨라(榜 6:92)
- 모도 거느리고져 커든(欲統領)(榜 6:12)
- 거느릴 부 : 部(訓蒙 中7)
- 거느닐 통 : 統, 거느닐 어 : 御(訓蒙 下32)
- 남지니 어디디 못호면 겨지블 거느리디 못호고(夫不賢則無以御婦)(宣內 2卜5)
- 거늘인 밧 일이 한디라(所領事多)(宣小 6:42)

② 救濟하다

도로 人間에 나아 輪正이 드외야 四天下를 거느려 威嚴과 德과 自在하야(釋 9:19)
 天下를 거느렛더시니(釋 13:30)
 時世 거느릴 지조를 기들워 뵈디니라(還須濟世才)(杜初 21:7)
 거느릴 제 又 건널 제 : 濟(訓蒙 下32)
 어느 스시에 녹물 거느리리오(宣內 3:40)

한편, '救濟하다'의 뜻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어형으로, '거느리다'에서 파생된 '거느리치다'가 생겨나 아래 용례처럼 쓰였다.

- * 엇데 時節 거느리출 謀策이 업스리오마론(豈無濟時策)(杜初 3:58)
- * 문득 다시 주어 거느리치더라(輒復賑給)(麟小 9:23)
- * 사롭익게 받드시 거느리칠 배 이시리라(於人必有所濟)(宣小 5:58)

17세기에도 중세국어와 같이 이 단어가 '領'과 '濟'의 의미로 쓰였으며 어형이 '거느리다'로도 나타나고, '거느리다'의 파생어 '거느리치다'도 계속 쓰였다.

① 거느리다(領)

그 아오와 믿 족하 마으나른 사람 거느려(率其弟及姪四十餘人)(新續 孝8:65)
 아츨 나죄로 아둘 거느리고(朝夕率子)(新續 烈2:85)

② 救濟하다

時世 거느릴 지조를 기들워 뵈디니라(還須濟世才)(杜重 21:7)

- * 乾坤을 고터 時世 | 거느리츄물 못도다(整頓乾坤濟時了)(杜重 4:17)
- * 어려운 제 時節 거느리칠 지조를 기피 依仗하눗다(艱危深仗濟時才)(杜重 23:31)

18세기에는 단어 '거느리다'가 '救濟하다'의 뜻으로는 쓰이지 않았고, 어형도 '거느리다'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① 거느리다(領)

집이 부요커든 친척을 거느리며 흥년이어든 니웃술 진제하며(敬釋 9)
 신병을 거느려 턴하의 순항하야(敬釋 19)
 물 툰 이룰 거느리고(三譯 2:10)

거느릴 술 : 率(倭解 下33)
거느리다(率領)(同文 下59)

19세기에서도 이 단어의 의미는 같으나, 어형은 '거느리다'는 나타나지 않고 '거느리다' 또는 19세기말에 간행된 「國漢會語」(1895)에서는 '거나리다'로 표기되었다.

① 거느리다(領)

거느릴 御(註千 35)
거느릴 령 : 領(註千 41)
거나리다(領率. 領首. 領座. 統首. 統率. 統督. 統領), 거나릴 통 : 統. 거나릴 령 : 領. 거나릴 술 : 率(國漢 p.5)

20세기 전반기에 표기된 이 단어의 모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거나리다 : 率ゝろ. 例) 兵卒을 거나리다.(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거느리다 : '거나리다'에 同じ.(上同)
한 대는 자기가 거늘이고 애라의 집을 습격하얏든 것이다.(「荒原行」 p.94)
거나리다 : '거느리다'에 보라.(문세영 「朝鮮語辭典」)
거느리다 : ① 앞에 데리고 있다. ② 끌고 가차 가다.(率)(上同)

위의 표기를 살펴보면, 조선총독부 편 「朝鮮語辭典」(1920)에서는 어형 '거나리다'를 뜻풀이하 여 놓고, 어형 '거느리다'는 이것과 같은 단어로 하여 무게를 '거나리다'에 두었다. 그러나 1929년에 나온 현진건의 소설 「荒原行」에서는 '거늘이다'로 표기하였고, 문세영의 「朝鮮語辭典」(1938)에서는 어형을 완전히 '거느리다'로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거느리다'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느리다(領. 濟)(중세국어)>거느리다(領)(18세기)>거느리다. 거나리다(領)(19세기)>거나리다(領)(1920년)>거늘이다(領)(1929년)>거느리다(領)(1938년~현재)

VI. 결 론

이상과 같이 어휘 변천을 ① 어형이 소멸된 것(가줄비다, 갓), ② 어형이 분화된 것(가도다, 가률), ③ 어형이 변화된 것(가비얏다, 가습, 값다, 거시다), ④ 어형이 유지된 것(값, 거느리다)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이들의 어형과 의미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가줄비다(어형 소멸형)

'가줄비다'는 중세국어에 '比較, 譬喩'의 의미로, 17세기에는 '비교'의 의미로 쓰이다가 어형이 사라졌다.

가줄비다(比較, 譬喩)(15세기) > 가줄비다(比較)(17세기)

2. 갓(어형 소멸형)

'갓'이 중앙어에서는 17세기까지만 쓰이고 이 어형이 사라진 반면, 이 말의 의미는 '안희', '겨집' 등과 같은 기존의 단어가 도맡아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언에서는 '갓'이 '가시내', '가시나', '가시나이', '간나', '간나이' 등의 어형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3. 가도다(어형 분화형)

15세기보다 앞선 시기에 단어 '가도다'와 모음교체하여 어형 '거두다'가 형성되었고, 어형 '가도다'는 17세기까지는 '收'와 '囚'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18세기에는 '收'의 의미는 기존의 어형 '거두다'에 흡수되었다.

① 가도다(收, 囚)(15세기)>가도다(囚)(18세기)>가두다(囚)(19세기~현재)

② 거두다(收)(15세기~현재)

4. 가률(어형 분화형)

15세기에 단어 '가률'은 '派'와 '股間'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전자는 어형이 변화하여 '갈래'가 되었고, 후자는 '가랑이'라는 어형이 19세기부터 나타난다.

가률(派, 股間)(15세기)>① 가률(派)(16세기)>가래(派)(17세기)>가리(派)(18세기)>갈래(派)(20세기~현재)

>② 가랑이(股間)(19세기~현재)

5. 가비압다(어형 변화형)

가비압다(15세기)>가비압다(16세기)>가비엣다(18세기 중엽)>가벵다(1938년~현재)

6. 가슴(어형 변화형)

가슴(胸部, 마음, 肺)(15세기)>가슴(胸部, 마음)(18세기)>가삼, 가슴(胸部, 마음)(19세기)>가슴(20세기~현재)

7. 값다(어형 변화형)

값다(藏, 隱, 殮)(15, 16세기)>값다(藏, 隱)(17세기)>갈므다(1938년)>갈무리하다(현재)

8. 겨시다(어형 변화형)

겨시다('머물러 있다'의 높임말, 사람에 딸린 사물이나 사실의 높임말)(중세국어)>겨시다, 계시다(의미는 중세국어와 같음)(17세기)>계시다('있다'의 높임말)(20세기초~현재)

9. 값(어형 유지형)

단어 '값'은 18세기까지는 다른 의미와 더불어 '代身'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이 말이 '代身'의 뜻으로는 쓰이지 않고, 그 대신 다른 의미가 더 추가하여 쓰이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값(價格, 代金, 代價·값, 代身)(중세국어)>값(價格, 代金, 代價, 어떤 사물의 중요성이나 의의, 수학에서 式이 취하는 수)(현재)

10. 거느리다(어형 유지형)

단어 '거느리다'는 17세기까지는 '領'의 의미와 더불어 '救濟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으나, 18세기부터는 후자의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거느리다(領, 濟)(중세국어)>거느리다(領)(18세기)>거느리다, 거나리다(領)(19세기)>거나리다(領)(1920년)>거늘이다(領)(1929년)>거느리다(領)(1938년~현재)